

네티즌의 가족/친족관련 가치관과 태도

A Study on the Attitude about the Family/Kinship Life of Netizen

인하대학교
시간강사 고 선 주

Inha university
Lecturer : Koh, Seonju

● 목 차 ●

- | | |
|--|---------------------------------------|
| I. 정보사회와 가족 | III. 네티즌의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 II. 인터넷의 영향: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과 가상공동체 | IV. 논 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information society affected the attitude about the family/kinship life of Netizen. For this goa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5 Netizen who use the Interne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In Netizen, the support to familism and boy preference was low level. Secondly, in their attitude to the divorce and remarriage, there was a tendency which accepts a marriage with selection. Thirdly, they had a tendency to agree equal partnership in couple relationship. Fourthly, virtual community in cyber-space was found, but the loyalty of members was not enough strong. Fifthly, in the family/kin rites, it was showed non-traditional tendency. And in all aspects, som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men and wome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couple relationship in the information society becomes more important, and there is a tend to increase acceptability to sexuality. In contrast, there is still another discrimination in cyber-space by focusing on traditional mother role.

주제어(Key Words):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네티즌(netizen),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I. 정보사회와 가족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의 사회변동 중에서 가장 급격하고 핵심적인 변화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정보화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보화가 단순한 기술적 측면을 넘어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제반 영역에서 관찰되는 일련의 정보 기술적 효과들로 폭넓게 인식됨으로써 단순한 정보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보다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되는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계의 이완이다(김문조, 1998). 지식정보의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교류와 활용이 <경계의 폐쇄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의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의 이완을 가족에 적용해 본다면 기존의 세대간, 성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기존 질서를 유지해주던 가족간의 성, 세대간의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의미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남녀간의 엄격한 성역할 분리가 희미해지는 것 등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계의 이완이 바로 가족간의 순조로운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족 내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해주던 성간 세대간 경계가 이완된다는 의미는 역으로 통제되던 갈등이 노출되고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 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족과 친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태도에서 이런 갈등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정보이용에서의 성차 소멸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지녀야 하는 부분은 이런 정보이용 집단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태도에서의 차이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응답자에게 직접 평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카네기 멜런 대학의 HomeNet 조사(Kraut, Patterson, Laundmark, Kiesler, Mukophadhyay

& Scherlis, 1998)와 스탠포드 대학 SIQSS(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Society)의 연구(2000)는 인터넷의 이용이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Pew Internet & American life (2000)에서는 오히려 인터넷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시켜준다고 본다. 또한 조정문의 연구(1999)를 보면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이중적인 역할이다. 즉, 인터넷은 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외부집단과 연결됨으로써 각 가족성원들을 고립시키는가 하면, 가족성원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도움을 줌으로써 가족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박부진·이해영, 2000). 또한 이 같은 연구들의 차이는 누구와 인터넷을 이용하는가를 살펴보지 않은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즉, 가족간의 e-mail 교환은 가족원간의 관계를 향상시켜주지만 가족원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이들의 가족 생활에 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네티즌으로 불려지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며 특히 네티즌의 가치관과 태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네티즌의 친족과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정보통신 기기의 가정 내 결합, 직접적으로는 인터넷의 사용을 통해서이다. 그렇다면 정보사회의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어떻게 해서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서 가족의 삶과 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 기반하고 있는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와 가상공간 안의 공동체이다. 즉 CMC와 가상공동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족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삶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CMC의 특성과 이로 인한 영향력, 그리고 가상공동체에 대해서 우선적인 논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영향을 통해서 실제 정보화가 가족 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가상공동체에 대해 살펴본 후 네트즌의 가족 친족에 관련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태도등과 가족관계, 의례 등에서 성차가 나타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의 가족과 친족생활에서 성간의 경계 이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II. 인터넷의 영향: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과 가상공동체

정보통신기술이나 정보화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보화가 만약 단순한 기술적인 혁명이라면 가족원간 혹은 다른 구성원간의 통신기술이나 가사노동의 자동화 같은 측면이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변혁을 가져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왜 정보사회에서의 가족은 변화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인가? 흔히 이야기되는 인터넷 성향의 어떤 측면이 기존의 가족생활양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정보화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지표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 그 사회의 인터넷 이용률이다. 2000 상반기 이후의 KNP 인터넷 시장 조사(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0)에 따르면 뚜렷한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이용자 중 여성 이용자, 특히 주부 이용자의 증가)를 들고 있다. 이 조사는 인터넷이 이제 더 이상 특정집단이 아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여성 사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증가 속도는 이제 곧 거의 모든 가족이 인터넷을 가족의 삶 안으로 가져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킹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인터넷이 어떠한가에 실질적인 가족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선주(2000)는 인터넷 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로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형의 변화, 인간 사고체계의 변화,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극복과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런 웹 생활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가상공동체는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가족간의 관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게 될 것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과 가상공동체의 등장이 될 것이다.

1.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이란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 또는 과정이다(김유정, 1998). 실제 공간에서 송·수신자간의 신체적 만남을 통해

- 1) 2000 인터넷 이용자중 여성의 비율이 1999년 하반기 29.3%에 비해서도 17.2%나 증가한 36.5%로 나타나 여성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ISDN/ADSL, CABLE가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하반기(31.7%)에 비해서 2000년 상반기에는 42.8%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중 30%선인 880명이 주부였으며 주부들은 자택(89.8%)에서 주로 접속했다. 6개월에서 1년 인터넷을 사용한 주부들이 62.3%로 아직 초보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접속비용을 3만원 이상 쓰는 주부들이 80.2%에 달해 인터넷을 자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네트즌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었다.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을 상상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소 인위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상공간에서 텍스트화된 메시지가 교환, 저장, 편집, 발송, 그리고 복사되어 동시적이든 비동시적이든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송·수신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바로 CMC이다. 또한 논의의 대상은 주로 e-mail, 컴퓨터 회의, 컴퓨터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하는 자아상을 창출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서 상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언어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을 나누는 이들간의 평등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CMC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데(박수호, 1998)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우선 자아와 주체의 재구성이 가능해진다. 즉, 자아는 행위주체에 주어지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이에 대해 객체적 자아 영역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CMC에서는 이와 반대로 타인의 반응에 관계없이 행동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자극-반응 연속적인 과정이 아닌 연속적인 자극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아는 불안정해지고 규범의 약화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아 정체성을 변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신의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일회적인 만남을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의 극단적인 형태가 가상공간에서의 폭력이나 일회적인 만남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재구성의 문제는 성과연령에 의한 분명한 구조와 위계질서를 지니고 이에 따르는 역할이 있는 가족 현실과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일상생활의 민주화와 다원화이다. CMC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면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러한 생활양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부각되는 반면, 기존

의 위계질서를 주장하는 가족에게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서 오히려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게 되고 인터넷의 이용이 오히려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선업의 연구(1996)를 보면 PC통신 이용자의 14.6%가 통신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과 따로 대면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대면적 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이후 상대방에 대한 친밀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의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0)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이메일이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²⁾ 따라서 가상공동체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역할과 더불어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CMC와 관련하여 보여지는 가상공동체는 기존의 가족/친족관계망을 대체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CMC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가족내의 변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보다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민주적인 가족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성에도 불구하고 CMC 이용자의 지위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관계와 성

2) 인터넷 이용자의 55%는 이메일 교환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가족과 이메일하는 사람의 59%는 주요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했다고 하며, 66%는 주요 친구들과 관계가 개선되었고, 60%는 이메일하는 주요친구들과 더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49%의 이메일 이용자는 이메일 사용을 중지하면 매우 그리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메일 이용자의 60-70%가 친척 및 친구와 이메일을 통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고, 30-35%가 가족 및 친구와 이메일을 통해 보다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차는 산업 사회적인 가치관을 지닌 세대와 정보사회적 가치관을 지닌 세대간의 갈등 역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화된 세대를 네트세대라고 할 때 이러한 네트세대의 인간관계는 전통적인 우애적 관계(뜨거운 열정으로 성립된 친구)에서 생명의 전화적 관계(내용은 심각하지만 상대에 대해 아는바가 없는 관계), 뻘뻘 친구적 관계(지속적인 인사를 주고받는 관계), 마니아적 관계(특정 관심사만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등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선이, 1999)고 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부모세대가 지녔던 가치관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에 대한 근접성과 신속한 수집력 등을 고려한다면 부모들이 갖는 권위는 더욱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세대들은 자신들이 디지털 매체에 더 능통하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윗세대라는 점(김선업, 2000)은 가족 내에서도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CMC를 가족간 의사소통 통로로서 적극 활용한다면 웹 생활양식에 적응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족원에 따라 정보화된 수준이 다른 개인이 모여 정보격차에 따른 차이가 가족 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나 오히려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가족원에게 이러한 격차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CMC가 발달되고 가상공간이 활성화된다고 하여도 인간은 물적인 존재이므로 기존의 가족생활양식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즉, 웹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산된 웹 생활양식을 어떻게 해서 가족 안에서 조화롭게 자리 매김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2. 가상공동체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사이버 공간(cyber space)라고 명명한다. 이 공간은 디지털화된 온갖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가상의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대의 공간과 경

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행동양식과 소비분화를 창출하여 현대인의 의식과 경험세계를 재편해 낸다(김영정, 1999).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출현하는 집단들을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혹은 online community)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공동체와 어떤 역학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예측을 낳는 것이다. 최근에 보이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공동체가 갖는 잠재성을 이야기하지만 가상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진짜 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적으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논의할 때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가족은 농경사회에서 사회유지의 필수요소인 노동력의 제공원이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맺어진 가족과 친족간의 유대는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범위는 변화하였지만 크게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육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 1998). 따라서 우선 가상공간에서의 가상공동체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과 앞으로 현실세계에서의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가상공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기본적으로 시간적·공간적 장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초월성을 지니며, 익명의 접촉 장이고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삭제·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편집성, 구성성을 지닌다. 하이퍼링크에 의해 다선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중층적 구조를 지닐 뿐 아니라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신속성·즉시성을 지니며 또 물리적 거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탈공간적이고 허구적 세계라는 점을 특성으로 들 수 있다(김문조, 1999).

이러한 가상공간에 등장한 공동체인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는 전자게시판이나 채팅과 같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매개를 통해 말과 생각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Rheingold, 1993, 윤영민, 1999서 재인용). 특히 산업화·도시화 이후 보여주

고 있는 인간 소외에 대한 논쟁은 가상공동체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편리함과 신속함을 갖춘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보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수많은 가상공동체는 IMF관리체제 이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해체와 정보화 추진의 구도 하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기업들의 생존전략으로서의 가상공간의 공동체 지향 사업모형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의 요소를 친숙함(familiarity), 소속감(sense of belonging), 헌신(commitment) 유대(solidarity), 나아가 전인격적 관계(whole-personal relationship)로 보고 가상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한 윤영민(1999)에 의하면 가상공동체는 지역공동체와 보완관계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대체관계라고 본다. 즉, 가상공동체가 사람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보완적이지만 지역공동체가 제 구실을 못할 경우 공동체적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대체적이라는 의견이다. 즉,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상공동체는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출생, 육아, 결혼, 학업, 연애, 직업, 죽음 등과 같은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큰 의지가 되지 못하면 못할수록 비록 공동체성은 낮지만 기능적으로 탁월한 가상공동체가 그 사회에서 환영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해체가 끝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지리(geography)가 단지 그 동안 정보기술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놀로지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은 아니라 지리는 삶의 근본적인 질서에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상공동체의 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영역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왔던 가족/친족공동체는 가상공동체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질수록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적 기반을 포

기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가상공동체가 기존의 가족/친족공동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on-line과 off-line의 병행으로 기존의 공동체를 보완하거나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가상공간의 성격에 근거한 추측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상공동체의 기능과 더불어 현실의 공동체,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해왔던 공동체는 정보화된 집단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네티즌의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1.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네티즌의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설문조사(Electronic Survey)를 실시하였다. 전자설문조사란 인터넷 조사기법 중에서 사전에 확보된 가입자 DB를 표본추출을 기반으로 하는 회원조사(Member survey)와 인터넷 상에 특정 사이트를 개설하고 설문지를 게시하는 방문자조사(Visitor Survey)가 혼합된 형태로 회원 DB를 갖추고 있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게시된 설문 조사에 응하는 조사 방식이다(이계오, 2000). 전자설문방식으로 일주일간 설문지를 게재한 후 네티즌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네티즌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로 정의되었다.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의 인터넷 이용자 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를 만 7세 이상의 인구중에서 한달에 한번 이상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족과 친족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고

등학생 이상의 이용자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네티즌 성격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령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성차를 살피기 위해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그 결과 남자 173, 여자 132 명으로 총 31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이 중 9명에 불과한 40대를 제외한 총 305명의 네티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³⁾

2) 연구문제

네티즌의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네티즌의 가족관련 가치관(가족주의, 남아선호, 비용적 자녀관, 보상적 자녀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네티즌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네티즌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네티즌의 가족/친족 생활의례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네티즌의 가치관,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 결혼과 이혼에 관한 태도, 생활의례실태와 태도는 네티즌의 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네티즌의 컴퓨터 이용시간과 동호회활동여부에 따라서 가족관련 가치관(가족주의, 남아선호, 비용적 자녀관, 보상적 자녀관)은 차이가 있는가?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네티즌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네티즌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표 1>의 내용을 보면 성별구성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 20대가 많은 편이며 대졸이상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정보화는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표 1> 네티즌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특 성	명	
성 별	남	173(56.7)
	녀	132(43.4)
	합 계	305(100.1)
연 령	10대	89(29.2)
	20대	177(58.0)
	30대	39(12.8)
	합 계	305(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84(27.6)
	전문대졸 이하	30(9.8)
	대졸이상	172(56.4)
	대학원이상	18(5.9)
	기 타	1(0.3)
합 계	305(100.0)	
하루이용시간	30 분 미만	10(3.3)
	1시간 미만	33(10.8)
	2시간 미만	91(29.8)
	2시간 이상	171(56.1)
	합 계	305(100.0)
결혼지위	미 혼	256(83.9)
	기 혼	45(14.8)
	이혼/별거	1(0.3)
	무응답	3(1.0)
	합 계	305(100.0)
직업형태	가 사	14(4.5)
	건 설	7(2.3)
	교 육	6(2.0)
	공무원	6(2.0)
	금 용	3(1.0)
	서비스	10(3.3)
	제조업	11(3.6)
	컴퓨터 관련	15(4.9)
	프리랜서	6(2.0)
	학 생	168(55.1)
	무 직	17(5.6)
	기 타	42(13.8)
	합 계	305(100.1)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2000년 8월 인터넷이용자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률은 7-19세의 경우 65.9%, 20대가 65.9%, 30대가 35.4%, 40대의 경우 18.5%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한 척도를 이용한 타 연구(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 1998, 2000)에서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0대의 경우 교육이 완료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교육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두드러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전사회적으로 주부와 노인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격차 확산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이 하루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은 1시간 이하인 light user⁴⁾가 14.1%인 43명이며 응답자의 대부분인 84.9%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medium user⁵⁾ 이상이었다.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활용능력이 중요한 지표가 됨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의 네티즌은 어느 정도 정보사회에서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결혼지위와 직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생이 가장 많고 대부분 미혼이며 학생이외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네티즌의 가상공동체 특성

공동체 형성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보기 위하여 가상공간에서의 동호회 활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알게 된 이들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조사대상이 된 305명의 네티즌 가운데에서 동호회 활동을 1개 이상 하는 경우는 총 61.6%인 118명이었다. 60% 이상이 한 개 이상의 동호회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가상공간에서 어느 정도 가상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호회활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없다'는 이가 61.7%이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3%인 72명이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실제 접촉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만난 적이 없다'는 경우가 60.6%이다. 그러나 약 40%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어도 한번 이상 만난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가까운 이가 있다고 응답한 72명의 경우에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는 가를 보면 만난 적이 없다는 경우는 27.8%인 20명으로 줄어들며 1년에 한

<표 2> 네티즌의 가상공동체 특성 단위: 명

내 용	범 주	명(%)
동호회 활동수	하지 않는다	117(38.4)
	1개	47(15.4)
	2-3개	91(29.8)
	4개 이상	50(16.4)
	합 계	305
*특별히 가까운 이	없다	116(61.7)
	있다	72(38.3)
	합 계	188
*실제접촉시도	만난적 없다	114(60.6)
	1년에 한두번	22(11.7)
	몇 달에 한두번	21(11.2)
	한달에 한두번	20(10.6)
	일주일에 한두번	11(5.9)
	합 계	188
*어느 정도나 가깝다고 느끼는지	매우 가깝다	8(4.3)
	약간 가깝다	53(28.2)
	그저 그렇다	73(38.8)
	별로 가깝지 않다	27(14.4)
	전혀 가깝지 않다	27(14.4)
	합 계	188
*정서적 위로	전혀 받지 않는다	71(37.8)
	가끔 받는다	97(51.6)
	자주 받는다	17(9.0)
	항상 받는다	3(1.6)
	합 계	188

* 표시된 문항은 동호회활동을 하는 118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중요하게 나타난 연령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인 40대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4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light user는 하루 평균 인터넷을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사람. medium user는 하루 평균 인터넷을 1시간 이상-4시간 이내 이용하는 사람.

heavy user는 하루 평균 인터넷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함.

5) 본 조사의 light user와 medium user의 분포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4곳의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다. 골드뱅크, 네띠앙, 알타비스타. 심마니의 이용시간은 light user가 121.8부터 16.4%까지 분포하며 medium user이상은 83.5부터 87.8까지로 본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윤영민·정연정, 2000).

두 번 만난다는 경우가 15.3%인 11명, 몇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경우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경우가 22.2%인 16명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는 경우도 12.5%인 9명이었다. 따라서 on-line 상에서 가깝다는 경우는 off-line에서도 실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고 있는 이들 중심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의 다른 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가깝다고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서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슷한 정도였다. 또한 이들에게서 정서적 위로를 받는가를 보면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자면 가상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강한 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친근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동기의 연구(1996)에서 동호회 사람들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느낀다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7.8%라는 응답을 고려한다면, 가상공동체의 정서적 기능은 아직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결과

1) 가족관련 가치관

다음의 <표 3>에는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가족관련 가치관⁶⁾이 제시되어 있다.

네티즌들이 보여주는 가족주의 가치는 7.68(3-15)점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 네티즌은 전반적으로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가 약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선호는 중간 값인 6인데 비하여 평

균이 4.54(2-10)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 자녀관의 경우 7.16(2-10)점으로 약간 높은 편이며 비용적 자녀관 역시 7.52(2-10) 유사하게 나타나 네티즌들은 자녀를 보살과 비용의 양가적인 측면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네티즌은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는 약한 편이며 특히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은 별로 없고 자녀를 긍정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앞으로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네티즌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4>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네티즌의 응답이 나타나 있다.

먼저 네티즌들이 응답한 결혼/이혼에 관한 태도를 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네티즌은 '여건이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문항에서 과반수 정도인 50.2%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6) 가족관련 가치관은 옥선화등의 연구(1998: 2000)에서 사용된 척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각 문항의 설명력을 근거로 하여 축약된 것이다. 가족주의척도는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전체의 불행이다' '자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부모와 의논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아선호는 '딸만 있으면 뭐가 허전하다'와 '딸보다 아들이 잘 되어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것이다'의 2문항, 긍정적 자녀관은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결혼의 의미가 풍부해진다' '자녀가 있어야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외롭지 않기 위해서이다'이며, 비용적 자녀관은 '자녀 때문에 부부간에 의견충돌이 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들다'의 2문항이다.

<표 3> 네티즌의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

N=305 단위: 명(%)

특 성	가족주의(3-15)	남아선호(2-10)	긍정적 자녀관(2-10)	비용적 자녀관(2-10)
평 균	7.68	4.54	7.16	7.52
표준편차	2.10	2.03	1.53	1.45

〈표 4〉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결혼/이혼에 대한 태도	응답범주	네티즌
경제적 및 다른 여건이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8(12.5)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21.6)
	보통이다	48(15.7)
	그런 편이다	90(29.5)
	매우 그렇다	63(20.7)
	합 계	305
결혼은 적령기에 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93(30.5)
	보통이다	66(21.6)
	그런 편이다	106(34.8)
	매우 그렇다	19(6.2)
	합 계	305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전혀 그렇지 않다	8(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8.5)
	보통이다	47(15.4)
	그런 편이다	121(39.7)
	매우 그렇다	103(33.8)
	합 계	305
부부간에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16.7)
	보통이다	91(29.8)
	그런 편이다	132(43.3)
	매우 그렇다	21(6.9)
	합 계	305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 응답을 한 응답자는 34.1%로 네티즌은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적령기에 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보면, 네티즌의 경우는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 34.8%에 해당하는 106명이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41%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립적인 응답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살펴 보았을 때 부정적인 응답인 37.4%로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이 유사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질문 역시 네티즌의 경우에도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39.7%인 121명이었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는

경우 73.5%로서 이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여 네티즌의 경우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분명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성생활에 관한 질문에서 보면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3.3%인 132명이었다. 강한 지지를 한 응답까지 포함하면 50.2%로 반대하는 20%에 비해 과반수 이상의 네티즌은 성적문제로 인한 이혼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미혼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성생활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가능성이 실제 이들의 결혼생활에서도 나타날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통신이나 인터넷에서 성이라는 주제가 좀 더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자료가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성생활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지만 실제 이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때에도 동일한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는 추후에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볼 때 네티즌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선택적인 성향을 띄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생활에서 성적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만으로 네티즌의 성향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가족관계에 대한 태도

〈표 5〉를 보면 어떤 가족관계가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네티즌은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네티즌의 응답이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편으로서 중요한 역할에서 네티즌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집안을 잘 통솔하는 것이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존연구(육선화 등, 1998; 2000)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나 생계부양자역할을 강조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부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를 묻는

〈표 5〉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 단위: 명

	응답범주	네티즌
중요한 가족관계	부부관계	277(90.8)
	부자관계	18(5.9)
	모자관계	4(1.3)
	모녀관계	6(2.0)
	부녀관계	0(0.0)
	합 계	305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중요한 요소	생계책임자역할	57(18.7)
	아내를 인격적 존중	90(29.5)
	집안을 잘 통솔	90(29.5)
	자녀양육을 잘하는 아버지	18(5.9)
	아내에게 애정적인 남편	50(16.4)
	합 계	305
부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중요한 요소	생계책임자역할	11(3.6)
	남편을 인격적 존중	103(33.8)
	집안살림을 잘하는 것	39(12.8)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상한 어머니	95(31.1)
	남편에게 애정적인 아내	57(18.7)
	합 계	305

질문에서도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3.8%이며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상한 어머니라는 응답이 그 다음인 31.15였다.

이처럼 남편과 부인에 대한 중요한 역할로서 지적하고 있는 바를 보면 네티즌의 경우 여성에게는 기존의 자녀양육 담당자로서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부부관계에서 보다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생활의례의 실태와 인식

다음은 네티즌들에게 가족/친족생활에 관련된 의례를 질문한 내용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관혼상제는 가족과 친족생활을 반영한 대표적인 통과의례로 볼 수 있는데 네티즌의 경우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례에 무관심할 수 있으므로 관례의 현대적 해석은 성인이 되는 시기를 의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제사풍속의 변화 예측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의 〈표 6〉에 나타나 있다.

네티즌들은 ‘남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

〈표 6〉 가정생활의례에 대한 응답 단위: 명(%) 합계: 305

	응답범주	네티즌
남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	고교졸업	42(13.8)
	만20세	31(10.2)
	대학졸업	32(10.5)
	취직	33(10.8)
	군대제대	95(31.1)
	결혼	38(12.5)
여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	자녀출산	34(11.1)
	고교졸업	53(17.4)
	만20세	46(15.1)
	대학졸업	57(18.7)
	취직	39(12.8)
	결혼	54(17.7)
아들이 없다면 제사는 어떻게?	자녀출산	56(18.4)
	양자입양	7(2.3)
	외손봉사	60(19.7)
	절이나 성당 안 지낸다	69(22.6)
현재의 제사풍속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안 지낸다	169(55.4)
	장남이 계속	26(8.5)
	아들들끼리 나누어	32(10.5)
	아들 딸이 나누어	67(22.0)
	종교기관이 대행	54(17.7)
	차츰 없어질것	126(41.3)

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31.1%인 95명이 군대제대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응답범주보다 높은 비율이며 군 제대를 제외하고 나면 고교졸업, 만20세, 대학졸업, 취직, 결혼, 자녀출산의 응답범주에 대하여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남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로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어른이 되는 시기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대학졸업과 자녀출산의 경우가 가장 많은 응답범주였다. 여성이 어른이 되는 시기에서 네티즌들의 응답이 보이는 특성은 전반적인 범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대학졸업과 자녀출산이지만 모든 응답이 10% 이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여성이 어른이 되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제사풍속에 대한 예측은 네티즌은 아들이 없다면 안 지내는 편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차츰 없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제사

는 대체로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예측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 다음으로는 아들 딸이 나누어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고 현재의 제사관행인 장남이 맡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장 낮은 비율인 8.5%에 불과해 제사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계직계위주의 제사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네티즌의 성에 따른 차이

(1)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네티즌들이 응답한 가치관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먼저 네티즌들은 가족주의 가치에서 중간이하이지만 남성들의 가족주의 가치가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선호도 비교적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남성들의 남아선호가 더 높은 편이었다. 가족주의와 남아선호 모두 전통 한국사회의 부계직계가족구조에 근간을 두는 것이므로 이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남성들의 가족주의와 남아선호가 약간이라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녀관 역시 긍정적 자녀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용적 자녀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자녀의 비용적 측면을 높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네티즌조차 이러한 성차가 유지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CMC의 특징이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민주적인 생활양식과 태도를 갖춘 정보화된 가족원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가족 안에서 아직은 기존의 성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즉, 네티즌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치관이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의 변화방향은 예측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남녀간의 성차가 나타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성차는 가족 내에서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지적한 경계의 이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먼저 결혼/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네티즌의 성차를 보기 위하여 '경제적 및 다른 여건이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 수 있다'와 '결혼은 적령기에 해야 한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부부간에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의 네 문항에 대한 분포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전 문항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chi^2=32.56, p<.001$). 또한 결혼은 적령기에 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응답이 173명 중 39.9%인 69명이 '그런 편이다' 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132명 중 52명으로 39.4%였다($\chi^2=18.04, p<.001$). 또한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문항에서는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에서 여성의 경우에 좀 더 강하게 긍정하는 경향이 있었다($\chi^2=38.92, p<.001$) 부부간에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남성들의 경우보다 여성들이 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chi^2=14.51, p<.01$). 이는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더 회의적임을

<표 7> 성에 따른 가치관 차이

가치관	성별	N	M(sd)	t
가족주의	남성	173	8.18(2.23)	4.95***
	여성	132	7.02(1.71)	
남아선호	남성	173	4.93(2.09)	3.90***
	여성	132	4.04(1.83)	
긍정적 자녀관	남성	173	7.16(1.52)	-.03
	여성	132	7.17(1.54)	
비용적 자녀관	남성	173	7.23(1.50)	-4.05***
	여성	132	7.89(1.29)	

<표 8> 성에 따른 결혼과 이혼에 관한 태도

결혼/이혼에 대한 태도	응답범주	남 성	여 성	χ^2
경제적 및 다른 여건이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18.5)	6(4.5)	32.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24.9)	23(17.4)	
	보통이다	30(17.3)	18(13.6)	
	그런 편이다	49(28.3)	41(31.1)	
	매우 그렇다	19(11.0)	44(33.3)	
	합 계	173	132	
결혼은 적령기에 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6)	13(9.8)	18.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23.7)	52(39.4)	
	보통이다	29(22.5)	27(20.5)	
	그런 편이다	69(39.9)	37(28.0)	
	매우 그렇다	16(9.2)	3(2.3)	
	합 계	173	132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전혀 그렇지 않다	7(4.0)	1(0.8)	38.9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12.1)	5(3.8)	
	보통이다	39(22.5)	8(6.1)	
	그런 편이다	68(39.3)	53(40.2)	
	매우 그렇다	38(22.0)	65(49.2)	
	합 계	173	132	
부부간에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2)	1(0.8)	14.51**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20.8)	15(11.4)	
	보통이다	41(23.7)	50(37.9)	
	그런 편이다	73(42.2)	59(44.7)	
	매우 그렇다	14(8.1)	7(5.3)	
	합 계	173	132	

p<.01, *p<.001

보여주는 것이며 결혼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경향들은 여성과 남성이 지니고 있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네티즌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태도가 더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들의 결혼규범에 대한 동의와 여성들의 저항, 그리고 불행한 결혼에 대한 거부, 성에 대한 수용 등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다.

(3) 가족관계 변화의 실태와 인식

네티즌들의 가족관계에 관한 태도에서 성차가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하여 중요한 가족관계와 중요한 부부역할에 관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중요한 가족관

계와 남편역할에서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압도적인 응답은 역시 부부관계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경우에는 부자관계라는 응답이 9%,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모녀관계라는 응답이 4.5%라는 점으로 남녀 모두 자신과 동성의 부모자녀관계라는 응답이 부부관계 다음으로 지적되는 부분으로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chi^2=18.75, p<.000$). 중요한 남편역할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부인 역할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남성들은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상한 어머니가 가장 많은 46.2%인 61명이며 그 다음이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37.1%인 49명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40.9%인 54명이며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상한 어머니는 그보다 낮은 25.8%인 34명으로 남성들이 조금 더 전통적인 어머니상에 가까운 배우자 역할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hi^2=10.03, p<.05$).

(4) 가정생활의례의 실태 및 의식

가족/친족 관련 의례를 보면, 구체적인 의례라고 볼 수 있는 중친회, 묘사, 족보, 계모임 등에 참가하는가의 여부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즉, 네티즌의 경우 적어도 30대까지는 전반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남녀가 어른이 되는 시기라든가 혹은 제사에 대한 예측 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

남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는 성차가 있어 남녀 모두 군 제대를 드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남성들은 그 외로 고교졸업이나 만20세, 결혼 등을 들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들은 자녀출산과 결혼순으로 많았다 ($\chi^2=20.88, p<.01$).

아들이 없는 경우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남녀 모두 지내지 않는다가 많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절이나 성당이 그 다음 순인 반면, 남성은 외손봉사가 더 많았다($\chi^2=8.56, P<.05$). 즉, 남성들이 조금 더 혈연에 의한 제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사풍속의 변화예측에서도 나타나는데 남녀 모두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종교기관이 대행할 것이라는 항목인 반면 남성은 아들딸이 나누어 지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남성들은 직계비속에 의한 제사상속이 50%정도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장남과 아들들, 그리고 아들딸을 더해 28%에 불과하여 남녀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chi^2=23.64, p<.001$). 즉 종교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항목들을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본다면 남성들은 아직은 가정내 제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반 정도인데 비하여 여성들은 28%만이 그러하였다. 즉 남성들은 아직도 혈연에 의한 제사상속을 원하고 있음을 보

<표 9> 성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	응답범주	남 성	여 성	χ^2
중요한 가족관계	부부관계	153(88.4)	124(93.9)	18.75***
	부자관계	16(9.2)	2(1.5)	
	모자관계	4(2.3)	0	
	모녀관계	0	6(4.5)	
	부녀관계	0	0	
	합 계	173	132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중요한 요소	생계책임자역할	39(22.5)	18(13.6)	7.93
	아내를 인격적 존중	42(24.3)	48(36.4)	
	집안을 잘 통솔	53(30.6)	37(28.0)	
	자녀양육을 잘하는 아버지	12(6.9)	6(4.5)	
	아내에게 애정적인 남편	27(15.6)	23(17.4)	
	합 계	173	132	
부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중요한 요소	생계책임자역할	4(2.3)	7(5.3)	10.03*
	남편을 인격적 존중	49(28.3)	54(40.9)	
	집안살림을 잘하는 것	27(15.6)	12(9.1)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상한 어머니	61(35.3)	34(25.8)	
	남편에게 애정적인 아내	32(18.5)	25(18.9)	
	합 계	173	132	

* P<.05, ***P<.001

<표 10> 성에 따른 가족/친족 관련 의례

가족/친족관련 의례	응답범주	남 성	여 성	χ^2
남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	고교졸업	29(16.8)	13(9.8)	20.88**
	만20세	24(13.9)	7(5.3)	
	대학졸업	17(9.8)	15(11.4)	
	취직	22(12.7)	11(8.3)	
	군대제대	49(28.3)	46(34.8)	
	결혼	22(12.7)	16(12.1)	
	자녀출산	10(5.8)	24(18.2)	
	합 계	173	132	
여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	고교졸업	34(19.7)	19(14.4)	9.54
	만20세	30(17.3)	16(12.1)	
	대학졸업	33(19.1)	24(18.2)	
	취직	22(12.7)	17(12.9)	
	결혼	32(18.5)	22(16.7)	
	자녀출산	22(12.7)	34(25.8)	
	합 계	173	132	
	아들이 없다면 제사는 어떻게?	양자입양	6(3.5)	
의손봉사		34(19.7)	26(19.7)	
절이나 성당		30(17.3)	39(29.5)	
안 지낸다		103(59.5)	66(50.0)	
합 계		173	132	
현재의 제사풍속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장남이 계속	20(11.6)	6(4.5)	23.64***
	아들들끼리 나누어	27(15.6)	5(3.8)	
	아들 딸이 나누어	41(23.7)	26(19.7)	
	종교기관이 대행	21(12.1)	33(25.0)	
	차츰 없어질것	64(37.0)	62(47.0)	
	합 계	173	132	

*P<.05, ***P<.001

여주는 것이다.

6) 네티즌의 특성에 따른 가족관련 가치관의 차이

앞서 논의되었던 가상공동체적 성향과 네티즌의 컴퓨터 이용시간이 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네티즌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2시간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2시간 미만 이용하는 경우와 1 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⁷⁾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또한 공동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상공간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가족관

련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11>의 결과를 보면 가상공간에서의 동호회 활동여부에 따른 가족관련 가치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⁸⁾ 앞서 가상공동체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7) 집단 구분은 light user를 기준으로 하여 light user 까지를 한집단으로 그 이상을 다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8) 여기에서 컴퓨터 이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43명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기혼이 6명, 미혼이 37명, 10대가 22.9%, 20대가 62.8%, 30대가 9.7%로 전체 분석대상과 큰 차이는 없었다.

〈표 11〉 동호회 활동 여부와 컴퓨터 이용시간에 따른 가족관련 가치관의 차이

척도	집단	평균(SD)	N	t	척도	집단	평균(SD)	N	t
긍정적 자녀관	동호회활동 무	7.21(1.58)	177	.37	긍정적 자녀관	1시간 이하	7.09(1.36)	43	-.33
	동호회활동 유	7.14(1.50)	188			1시간 초과	7.18(1.56)	262	
비용적 자녀관	동호회활동 무	7.45(1.52)	177	-.62	비용적 자녀관	1시간 이하	7.09(1.50)	43	-2.08*
	동호회활동 유	7.56(1.41)	188			1시간 초과	7.59(1.44)	262	
가족주의	동호회활동 무	7.62(2.24)	177	-.36	가족주의	1시간 이하	7.72(1.52)	43	.19
	동호회활동 유	7.71(2.00)	188			1시간 초과	7.67(2.18)	262	
남아선호	동호회활동 무	4.80(2.14)	177	1.77	남아선호	1시간 이하	4.72(1.69)	43	.71
	동호회활동 유	4.38(1.95)	188			1시간 초과	4.51(2.08)	262	

*p<.05

고려한다면 예측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공동체 형성이 더 활발해지면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비용적 자녀관에서 컴퓨터 이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 비용적 자녀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시간 이용은 더 증가할 것을 예측해본다면 비용적인 측면의 인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지만, 여기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네티즌의 가치관을 단정짓기에는 성급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논 의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과 가상공간에서의 정체성,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서 네티즌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이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통해 이들의 가치관이나 가족관계, 의례와 관계망 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된 네티즌의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높은 교육수준과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네티즌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사회가 정보화 집단을 주축으로 한 또 다른 사회의 흐름을 대표한다면 교육수준이 가져오는 정보 격차는 사회계층의 지속을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제도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육수준은 정보격차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과 저연령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는 정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속성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형성해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보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노인층과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이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의 주부에서 노인으로 정보화 교육은 이러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네티즌은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는 약한 편이며 특히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은 별로 없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네티즌이 어느 정도 의견 선도 집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가치관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가치관이 특별히 다른 집단과 다른 것인가는 가치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전반적으로 네티즌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허용적인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공간의 정체성은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인 결혼규범에 따르지 않고도 필요한 관계망의 창출이나 독신자로서의 생활양식에 불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초기 정보화의 확산이 성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시작으로 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 산업사회의 특성이 성적 허용성의 증가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양상이 정보 사회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되는 비교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네티즌의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중심으로 가족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부역할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구체적인 부부의 역할에서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 역할의 경우에 생계부양자역할보다 애정적인 남편에 대한 응답이 높음으로써 남편 역할 변화에 의한 평등한 부부관계 확립을 이루려는 네티즌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의 강도에서는 성차가 있어 대체로 남성들이 좀 더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기대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네티즌들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내는 가상공동체를 통한 관계망은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기존의 관계망을 대체할만한 강력한 대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off-line에서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등 가상공간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관계망 확산의 움직임은 볼 수 있어 가상공동체의 기능 확산을 예상하게 한다. 김성국(1997)이 지적한 대로 가상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의 원칙, 최대한 접근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그리고 최소규제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가상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로 가는 과도기 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때 가상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로 자리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친족공동체가 수행하던 상당수의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친족 의례부분에서의 변화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섯째,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족의례는 특히 낮게 나타나 이러한 의례의 정보사회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네티즌의 경우 성인에 대한 인식에서 결혼보다는 자녀출산을 지적하고 있어 제도와 의례로서의 성인기 진입보다 실질적인 역할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일곱째, 네티즌의 경우 전반적으로 강한 성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네티즌 집단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역시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불균형에 대한 지각 그리고 이들의 차이와 이로 인한 논쟁은 계속되리라고 여겨진다. 특히 정보의 공개와 공유로 인하여 성차를 자극하는 현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다. 결국 정보격차와 더불어 유사한 정보화 집단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성의 차이는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리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여덟째, 하루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 자녀에 대한 비용적 자녀관 의식이 높았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 이용시간은 이들의 정보사회 동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는데 medium user 이상인 비용적 자녀관이 높다는 것은 과거의 자녀에 대한 의식에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다른 차이 역시 두드러지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티즌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허용성이 증가되고 평등한 부부관계가 주축이 된 가족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가치관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에서의 허용성, 장자에 의한 제사상속과 부부역할 중요성 평가 등을 연관지어 고려

한다면 네티즌의 경우에 좀 더 평등 지향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편역할에 대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지금까지 부부역할의 변화가 부인 역할 편에서 주도된 것이라면 앞으로의 사회는 남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계, 남성 중심의 특성은 그렇게 쉽게 소멸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임을 네티즌들 역시 성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앞서 경계의 이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성간의 평등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함으로써 전체적인 경계의 이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완되는 정도에서의 성간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태도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족원간의 갈등은 절대적인 양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비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이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인 정에서의 정보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더욱 보완되어야 정보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접근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큰 한계는 네티즌이라고 하는 집단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웹 사이트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이들의 자료접근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네티즌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이용시간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인터넷이용시간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결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대규모의 양적 분석을 통한 연구 이외에 소수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의 한계와 연관되는 것으로 정보사회에서 네티즌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가장 최근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젊은 층의 경우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즉, 네티즌에 대한 연구가 비네티즌과 비교연구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면 이미 비교대상의 실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양식이 우리의 생활전반에 파급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혹은 분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 산업사회의 가족을 논의하면서 이 영향을 받지 않은 도시가족을 찾아내어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사회를 논의하면서 이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네티즌 연구는 비네티즌과의 비교를 요하지 않는 네티즌 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여기에서의 네티즌은 30대까지로 한정하였지만 최근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연구가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웹을 통한 조사연구로 조사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축약척도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축약척도의 한계가 드러났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종합적인 여러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네티즌의 각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고선주(2000). 정보사회와 가족: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2), 167-183.
- 김문조(1998). 정보사회: 본질과 유형.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위임.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37-54.
- 김선업(1996).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관계망의 변화. 1996년 한국사회학회 추계특별 심포지엄.
- 김선업(2000). 정보화와 세대갈등.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 김성국(1997). 사이버커뮤니티의 형성과 해방: 새로

- 운 가능성을 찾아서. 한국사회학회 추계특별 심포지움.
- 김영정(1999). 정보화와 도시생활양식의 변모. 정보화시대의 사회구조와 문화. 한국사회학회 추계특별심포지움.
- 김유정(1998).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일상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변화.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위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87-107
- 박부진, 이해영(2000).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특성과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과 문화, 12(2), 99-126.
- 박수호(1998). 정보사회에서의 가족관계 변화와 가족가치관의 재정립. 사이버 문화연구소. <http://www.cyberculture.re.kr/forum/frame-3.htm>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 윤영민(1999). 가상공동체의 공동체성. 정보화시대의 사회구조와 문화. 한국사회학회 추계특별심포지움.
- 윤영민, 정연정(2000). 인터넷 배너 조사의 응답자 구성.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 Internet Survey workshop 논문집.
- 이계오(2000). 인터넷 여론 조사의 현황과 전망.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 Internet Survey workshop 논문집.
- 이선이(1999). 21세기 새로운 주역 넷세대. LG 커뮤니카토피아편. 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 백산서당.
- 조동기(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의 문제.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현대사회, 41-57. 한국사회학회편.
- 조정문(1999). 정보화와 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전기 학술대회발표.
- 중앙일보. 1999년 11월 18일.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2000).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 결과. http://stat.nic.or.kr/public_html/allym/statistics.html
- SIQSS. (2000). Norman. H. Nie, Lutz Erbring. 2000. Study offers early look at how internet is changing daily life. http://www.stanford.edu/group/siqss/Press_Release/press_release.html
- Kraut, R., Patterson, M., La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http://www.apa.org/journals/amp5391017.html>
- F. Webster 1995.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조동기역. 정보사회이론. 사회비평사.
- Pew Internet & American Life. 2000. Tracking online life: how wome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http://www.pewinternet.org/reports/toc.asp?Report=11>